



월간미술



2015 06

www.monthlyart.com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 잡지

잉카 쇼니바레

대구미술관 5.30~10.18



나이지리아계 영국인으로 날카로운 주제의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 잉카 쇼니바레의 아시아 첫 대규모 개인전. 작가는 폭넓은 인문학적 통찰력으로 역사와 문학, 미술사와 음악사를 넘나들며 역사의 이중성, 문화적 혼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프리카적인 소재를 주로 사용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유는 보편성을 지닌 채 시대를 반영하며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아프리카 식민주의 역사를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서구중심적 사고체계에 의한 차이, 차별, 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생물학적 '다름'을 이유로 아만적 침탈을 서슴지 않았던 강자들에 대한 비판이 숨어있다. 많은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흑'과 '백'의 비극적 상흔을 웃음과 깊은 여운을 통해 전한다. 침략을 통한 역사적 단절과 정신적 약탈을 통한 정체성의 상실이 빈번해진 세상에 대해 말하는 이번 전시는 조각, 평면, 설치, 영상작업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87점으로 구성된다.

피스마이너스원 : 무대를 넘어서

서울시립미술관 6.9~8.23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 지드래곤과 국내외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현대미술과 대중문화의 수준 높은 접점을 만들고,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된 프로젝트. 지드래곤이 보여 왔던 가시적 퍼포먼스를 넘어서,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그의 음악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현대미술 작품들을 통해 팝뮤직과 시각예술의 창의적 키워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클스코긴스 파비아베르셰 유니버설에브리띵 다비드콰올라 소피클레멘츠 제임스클라 이외에도 한국작가 6명이 참여한다. 미술관과 대중문화 아이콘의 만남이라는 이색적이고 실험적인 기획 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대미술과 거리가 멀었던 청소년과 대중음악 팬들을 미술관으로 유도하여 관람객 저변을 확대시키고 동시대 한국미술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한다.

유니버설에브리띵 작

폴란드, 천년의 예술

국립중앙박물관 6.5~8.30



쇼팽과 코페르니쿠스의 고향, 폴란드의 국보급 예술작품들이 국내로 반입돼 한 자리에 모인다. 폴란드의 역사와 예술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규모 기획 전시로 19~20세기 회화와 조각 등 폴란드 예술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 소개된다.

안마테이코 작

우리가 알던 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5.19~10.11



주거환경으로서, 사회시스템으로서의 도시에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온 강홍구와 박진영 두 작가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 대해, 그리고 도시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박진아 작

시징의 세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5.27~8.2



삶과 제도의 모순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지 고민하던 김홍석, 천 사오시용, 츠요시 오자와가 결성한 그룹 시징맨의 전시. 작가들은 시징(西京)이라는 가상의 도시를 만들고 동시대 삶의 허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황당한 희극을 만들어 낸다.

함경아

국제갤러리 6.4~7.5



사회 속에서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들을 개인적 삶의 실천적 문제로 보고 상관성 규명에 천착해 온 작가 함경아의 개인전. 이번 전시는 대규모 신작 자수회화 시리즈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이야기한다.